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권 기 범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인물화를 통한 불안의 재현과 해소

— 본인 작품 중심으로 —

202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박 해 리

인물화를 통한 불안의 재현과 해소

- 본인 작품 중심으로 -

권기범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박해리

인 준 서

박해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3년 5월

심사위원장 노 신 경 (인)

심사위원 이 만 수 (인)

심사위원 권 기 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인물화를 통한 불안의 재현과 해소’를 주제로 한다. 2020년 ‘육조에 얹은 사람의 초상’이라는 작품부터 2022년까지의 작업을 바탕으로 기술되었다. 2020년 제작된 작업 중 화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특징은 인물의 몸짓 변화이다. 불안의 통증은 정신적으로 시작해 몸짓으로도 발현되는데 이러한 불안의 특징에 주목하여 왜곡된 신체 이미지를 재현하고자 했다. 이후에는 몸짓을 드러내는 작업이 불안을 표출할 뿐 아니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음에도 주목했다. 이 글은 불안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 제작된 작업을 대상으로 작품의 창작 동기와 조형적 특성, 표현기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작업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작품 연구 논문이다.

본인은 2019년부터 심리 상태가 반영된 작업 과정에서 반복적 행위를 촬영하여 연구했으며 영상 속 반복적으로 두드러지는 몸짓 이미지의 특징이 무엇인지 탐구했다. 이 과정에서 신체 변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영상 속 이미지를 연구했고 몸짓 변화를 떠올리며 제작한 작업 과정은 나에게 또 다른 심리 불안을 유발하기도 했다. 2021년 불안장애를 겪으며 감정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니 인간은 언제나 불안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대인관계에서 오는 불안, 현대 사회의 무한경쟁과 성과주의 등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2021년 작업에서는 인물이 온전하지 못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똑바로 서 있지 못하는 조형이 나의 심리 상태나 기억과 연관되어있다. 또한, 죽음으로 인한 한계와 불안은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잠재되어있는 하나의 현상이다. 이것을 해소하고 치유하는 것이 연구자의 작업에 근간이 되었다.

연구자는 자화상을 기반으로 한 감정표출의 작업을 진행하였고 자화상이 놓인 공간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자아에 대한 이해에 접근해보았다. 2022년 작품에는 인간의 불안한 감정을 인지하고 회화를 통해 이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에 집중했으며 다채로운 색감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한다. 회화가 가지는 개인적 재현에 대한 가능성을 연구하며 나아가 확장적인 재현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했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동서양 인물화에 나타난 개념과 이해	3
2. 재현을 통한 불안의 해소	7
III. 본인 작품 설명	18
1. 인체의 반복적 표현	18
2. 일상 이미지	24
3. 초현실적 풍경과 인물	27
IV. 결론	34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의자에 앉은 사람의 초상>, 53×45.5cm, 장지에 혼합재료, 2020	19
【작품 2】 <무제>, 53×45.5cm, 장지에 혼합재료, 2020	19
【작품 3】 <욕조에 앉은 사람의 초상>, 53×45.5cm, 장지에 혼합재료, 2020	20
【작품 4】 <허리를 구부린 사람의 초상>, 53×45.5cm, 장지에 혼합재료, 2020	20
【작품 5】 <바닥에 누운 사람의 초상>, 120×240cm, 장지에 혼합재료, 2020	21
【작품 6】 <사람의 초상>, 193.9x390.9cm, 장지에 혼합재료, 2020	22
【작품 7】 <사람의 초상>, 112.1×145.5cm, 장지에 혼합재료, 2020	24
【작품 8】 <사람의 초상>, 193.9×130.3cm, 장지에 혼합재료, 2020	24
【작품 9】 <정월을타리>, 116.8×91cm, 장지에 혼합재료, 2021	25
【작품 10】 <천장을 굽는 사람의 초상>, 90.9×72.7cm, 장지에 혼합재료, 2020	26
【작품 11】 <문 밖을 나서는 사람의 초상>, 112.1×145.5cm, 장지에 혼합재료, 2020	27
【작품 12】 <숲>, 72.7×92.9cm 장지에 혼합재료, 2021	29
【작품 13】 <움직이는 시간들>, 116.8×91cm, 장지에 혼합재료, 2022	30

【작품 14】 <자화상>, 116.8×91cm, 장지에 혼합재료, 2022	30
【작품 15】 <자화상>, 116.8×91cm, 장지에 혼합재료, 2022	31
【작품 16】 <자화상>, 116.8×91cm, 장지에 혼합재료, 2022	31
【작품 17】 <아무것도>, 162.2×130.3cm, 순지에 혼합재료, 2022	33
【작품 18】 <무제>, 90.9×72.7cm, 종이에 연필, 수채, 2022	34
【작품 19】 <종이의 호흡>, 130.3×193.9cm, 순지에 혼합재료, 2022 ...	35

도판 목차

- 【도판 1】 구본웅, <여인>, 50×38cm, 캔버스에 유채, 1930,
국립현대미술관 8
- 【도판 2】 구본웅, <우인상>, 62×50cm, 캔버스에 유채, 1935,
국립현대미술관 9
- 【도판 3】 나혜석, <자화상>, 63.5×50cm, 캔버스에 유채, 1928 10
- 【도판 4】 천경자,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 43.5×36cm, 종이에 채색,
1997, 서울시립미술관 12
- 【도판 5】 천경자, <황혼의 통곡>, 96×129cm, 종이에 채색, 1995,
서울시립미술관13
- 【도판 6】 프랜시스 베이컨, <인체연구>, 147×134.2cm, 1949 15
- 【도판 7】 프랜시스 베이컨, <두 사람>, 152.5×116.5cm, 1953 16
- 【도판 8】 루시안 프로이트, <잠든 연금 관리자>, 150.5×161.3cm, 1995 .. 17
- 【도판 9】 카스파 다비트 프리드리히, <안개바다 위의 방랑자>,
94.8×74.8cm, 캔버스의 유채, 1818 28

I. 서 론

과거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이 작품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자의 불안과 공포는 어린 시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불안이 만들어내는 심리적인 현상을 넘어서 신체적 변화를 연구했다. 연구자가 촬영한 영상 속 신체적인 변화에 집중해보니 불안은 사람의 행위를 격렬한 몸부림으로 만들었고 표정의 변화를 극대화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감정들이 어떻게 해소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작품을 통해 연구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우리는 학생 때부터 무한경쟁과 성과주의에 놓이게 되고 대인관계에 대한 결핍을 경험하며 불안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내면 깊은 곳에 불안이 쌓이게 되며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이유를 인식하지 못하고 해소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작품활동을 하면서 인간의 내면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깨달은 것은 인간은 결국 과거의 기억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과거의 경험이 겹쳐질 때가 많다는 것이다. 불안을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자 인물화를 통해 재현해보며 우리의 삶에 깊게 스며든 불안의 근원을 찾아내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연구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인물화를 통한 불안의 재현과 해소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2020년 ‘육조에 앉은 사람의 초상’이라는 작품부터 석사학위 청구 전시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본론에서는 먼저 과거 동서양의 인물화에 담긴 정신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후 본인 작품의 작업 과정을 기술하고자 한다.

불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이고 고통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불안이 주

는 변화에 대한 고찰이 있었고, 이를 통해 삶에서 불안이 어떻게 해소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다. 또한, 인물화 이미지 속 신체적 특징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며 미술 속 인물화가 미술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어떻게 본 작업에 영향을 주었는지 서술하고자 한다. 작품의 설명에서는 인체의 반복적인 행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자화상과 일상의 이미지가 인체와 함께 표현됨으로써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와 초현실적인 풍경이 작품에 준 영향을 서술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본 논문을 정리하며 불안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그림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작업의 표현 과정에 대해 비교 분석하며 앞으로 나아갈 작업의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동서양 인물화에 나타난 개념과 이해

인물화는 가장 친근하면서 인간 내면의 본질을 깨닫고 표현하기에 좋은 소재이다. 동서양에서의 회화는 인물화를 중심으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초기에 인물화는 주가 되는 소재였다. 인물화는 자연과 어울려 친숙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기도 한다. 현대에서는 인간의 내면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인물의 형상이 추상적이면서 주관적으로 표현되었다.

과거에 동양에서는 자연 풍경에 인물을 작게 배치하였고 멀리서 보았을 때는 산수의 풍경으로 보이거나 가까이 들여다보면 인물의 일상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인물의 외형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인간을 하나의 자연으로 바라보았다고 할 수 있고 그림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묘사하였으나 주변의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여백으로 비워 두면서 여운을 남겼다.

오랜 역사를 지닌 인물화는 동양회화의 정신적 개념으로 구성되기도 하고, 시대에 따라 사회 전체를 대변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인물화는 생존의 인물화를 제작하기 보다는 성현(聖賢)이나 업적(業績)이 뛰어난 과거의 인물을 그리는 일이 많았고, 현재의 초상화와는 어느 정도 개념을 달리하기도 한다. 때로는 세월이 흘러 후대에 이르러 이전에 낡은 초상화를 이모(移模)하면서, 그렇게 이모된 초상화를 통하여 우리는 그 이전의 초상화의 면모를 엿볼 수 있도록 하였다. 달리 보면 동양회화에서의 인물화는 근대에 걸쳐 오늘날에 이르는 동안 형식적인 부분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그러나 내용이나 그 정신적인 부분은 사유 방식의 확장이라는 일관성 있는 발전을 이뤄왔다고 할 수

있다. 회화작품으로 구현된 인물은 개인의 가치를 기록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작품이자 자연 만물에 속하는 물(物)로 인식되기도 하고, 그 시대상이나 사상적 구조를 유추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매체로서의 의미로 전환되기도 한다. 즉, 인물화 제작의 목적이 제사(祭祀)나 특정 집단의 초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작되었다 할지라도 그려진 시대의 사회상과 철학적 가치가 표현되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공유 가능한 현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인물로 지각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물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사람의 생김새를 회화작품으로 시각화(視覺化)하는 것에서 나아가 인물의 정신과 삶의 본질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¹⁾

이처럼 과거 동양의 인물화에는 자연경관의 사생을 통해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이 담겨있었고 이후 근대로 오면서 서양화법에 영향을 받으며 새로운 화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서양의 인물화는 시각적 경험을 바탕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사실적인 묘사가 특징적이다. 인물화가 기록의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인체의 육체적인 부분을 아름답게 표현했다. 서양에서는 사실적인 묘사, 인체의 균형 잡힌 비례, 원근감의 표현이 두드러지고 특정 인물을 그리는 초상화가 주를 이뤘다. 인간을 하나의 주제로 바라보며 관찰하고 화가들은 일찍이 인물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인체표현 중 가장 큰 특징은 인체를 표현하기 위해 해부학을 공부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보편성보다도 개별성을 강조하는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견해가 등장하기 이전의 서양에서는 전형(典型)이나 이상만이 아닌 개개인 간의 기록인 초상화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13C 말경 유럽의 철학적·사회적인 기운은 그러한 초상화를 발전시키기에 적합했다. 이러한 발전을 촉진시킨 요인

1) 강유림 著, 「인물화 정신성의 시각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pp. 5~6

가운데 하나로 경험과학의 성장을 손꼽을 수 있다. 경험과학의 성장은 실재에 대한 경험을 강조하고, 세계에 대한, 또는 프란체스코파의 교의에서 말하는 신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고대의 유산으로서 개인의 명예에 대한 관념의 부활은, 실물을 그대로 그리는 초상화의 발전에 뚜렷한 기여를 했다.²⁾

후기 인상주의는 후기 인상과 이전의 미술에 대한 일종의 규칙으로 깨뜨림과 동시에 화면에서의 표현을 자유롭게 제시해 놓았다. 그것은 색채의 해방과 형태의 묘사에 있어 의식적으로 확대하거나 변형시키는 표현법으로부터 화면의 질서를 추구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내면의 정신세계로부터 출발한 회화에 대한 새로운 이념이 오늘날의 미술에 있어서 새로운 문제점을 제시해주게 된 계기가 되었다.³⁾ 작가 자신의 감정이나 주관을 드러내는 표현을 추구하였다.

20세기 중반 세계 미술계는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와 프랑스의 앵포르멜 등 모더니즘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영국의 모더니즘은 국제적인 위상을 보여주지 못하였고 추상미술보다는 구상미술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프랑스의 미술과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았지만 영국 고유의 경험론과 강한 리얼리즘 회화의 전통으로 세계적인 흐름과는 다소 동떨어진 채 독자성을 띠었다. 그 시기에 런던을 중심으로 진보적이고 개성적인 일군의 작가들이 등장하여 런던스쿨을 형성하였다. 특히 베이컨과 프로이트는 런던스쿨의 대표적인 작가로 인간의 실존적 문제를 강렬하고 독자적인 회화로 풀어내어 영국 리얼리즘 회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추상미술이 세계적인 주류를 이룬 시기에 영국의 전통적인 구상회화를 발전시켜 회화가 더 이상 무기력한 장식물이 아님을 새로운 개념의 구상회화로 보여주었다⁴⁾

2) Benjamin Rowland, Jr, 동서미술론, 열화당, 2002, pp.63~64

3) 위유열, 『한권으로 끝내는 미술교육』, 열린교육, 2004, p.424

4) 최욱, (2022), "화가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과 루시안 프로이트(Lucian Freud)의 작품세계에서 인체표현을 중심으로 한 비교연구," 유럽문화예술학논집, vol. 13, no. 1,

현대에는 인간의 자유로운 모습이 보이고 신체가 극단적으로 변형된 모습도 나타난다. 또, 이전의 미술에서 나타났던 규칙을 해방하고 내면의 정신세계로부터 출발한 회화를 제시한다. 화가들은 자신의 주관을 표현하고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을 추구했고 대상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에서 벗어나 화가의 경험과 상상력을 주제로 그리기 시작했다. 원색을 과감하게 사용하고 붓 터치的大小 크기가 크고 거칠며 인체의 모양이 뒤틀리기도 한다. 이처럼 현대의 인물상은 과거의 인물화를 벗어나 자신의 주관적 감정을 중심으로 표현되고 있다.

2. 재현을 통한 불안의 해소

연구자는 인체를 주제로 작업하였고 표현적 특징에서는 야수파와 입체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불안을 표출하는데 방법으로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등의 원색의 색채를 대담하게 사용했고 표현방법적 측면에서는 인체를 화면에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색과 형의 자율적으로 재배치했다.

한국 근현대 미술에서는 1930년 모더니즘의 작가로 주목을 받은 구본웅의 인물화 작업과 나혜석의 자화상, 천경자의 인물 작업 등 인물의 정신과 삶의 본질을 표현한 작품을 볼 수 있다. 당시 화가들은 서양의 영향을 받았으며 작품에서는 명암과 원근법을 볼 수 있었다. 이때 본격적으로 인상주의 화풍이 등장했고 그 외의 야수파, 입체파, 미래파, 표현파, 구성파, 초현실주의 등 다양한 화풍이 생겨났다. 구본웅의 작품에서는 대담한 원색의 배치와 과감한 화면구성을 시도했고 당시의 시대 분위기를 담아내기에 효과적이다. 구본웅(1906-1953)은 모더니즘을 바탕으로 작업을 시작했고 새로운 경향을 주도했으며 그의 시대적 고뇌가 작품에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야수파의 영향을 받아 그려진 작품은 시각적으로 강한 자극을 주면서 대중의 관심을 이끌었다. 특히 천경자(1924-2015)의 작품에서는 개성적인 표현이 돋보이고 이는 작품활동을 하며 꾸준히 조형적인 실험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시 화가들은 새로운 화풍을 수용하고 시도하고 발전시키면서 인물화를 통한 화가들의 예술세계가 발전된 방향으로 정립되어간 것을 볼 수 있고 작품이 제작된 시대배경과 내면세계가 잘 드러난다.



<도판 1> 구본웅, 여인, 50×38cm, 캔버스에 유채, 1930

여인상 작품은 여인의 상체를 클로즈업해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여성의 깍지를 끼고 고개를 비스듬히 젖힌 모습이 도발적이고 지그시 감은 눈과 반쯤 보이는 눈동자가 관능적으로 보인다. 붉은색과 초록색의 조화, 검고 굵은 선의 붓질 등 강한 대비가 대담한 성격이 돋보이며 야수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구본웅의 대표적 작품 <여인상>과 <우인상>은 모더니즘 경향의 범위 안에 있다. 두 작품은 일본 야수파 화가 사토미 가쓰조와 프랑스 야수파 화가의 영향을 보여준다. 일본 야수파 화풍은 일본의 이과회 회원들과 독립협회 회원들 사이에 프랑스 야수파 화풍을 직접 접촉하고 이식한 과정에서 생겼다고 볼 수 있다.⁵⁾

구본웅 작품은 야수파의 영향을 받은 색채에 과감하고 거친 붓 터치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흰색과 밝은 살구색을 사용해 인체의 빛을 받는 부분을 나타낸

5) 김영나, 「1930년대의 한국근대회화」, 『미술사연구』 제7호, 1993

것을 볼 수 있다. 인체의 구조와 골격이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된 점이 매력적이고 인물의 쇠골과 목선이 직선적으로 그려지면서 여성의 강한 기운이 느껴진다. 당시 식민지의 시대 배경뿐만 아니라 작가 개인적인 불행이 그림에서 드러난다.



<도판 2> 구본웅, 우인상, 62×50cm, 캔버스에 유채, 1935

구본웅의 오랜 친구이자 시인으로 알려진 이상을 그린 초상화이다. 구본웅이 장애인이고 몸이 약해 진급을 할 수 없어서 이상과 같은 반을 다니며 알게 되었다. 파이프를 물고 있는 이상의 모습은 시인의 고뇌와 고독이 느껴진다. 예리한 감수성이 담긴 인물을 통해 우울한 시대 배경이 잘 반영되어 보인다.

<우인상>은 폐병 환자였던 이상에 대해 환자로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치켜올린 눈빛과 야무진 입술, 두꺼운 눈썹으로 인물의 특징을 날카롭게 표현하였다. 코를 중심으로 얼굴 한쪽은 백색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독특한 정신세계를 전달하려는 듯 보인다. 작품 전체가 어두운 분위기인데 유독 백색의 살빛 아래 표현된 날카로운 눈은 얼굴의 중심에서 그 빛을 발하고 있다. 수염과 눈

자위 주변과 입술, 파이프 담배의 붉은색은 검정색, 군청색의 대비와 더불어 강렬한 인상으로 기억되게 묘사하였다. 또한, 이 작품은 〈여인상〉에서의 특징과는 다르게 선적 분할 기법을 사용하였다. 모자의 테두리, 코, 파이프 등으로 이어지는 굵은 선의 표현을 극히 일부에서만 적용하였다. 이 작품은 단조로운 느낌의 밝고 어두운 색채로 완성하였다. 특히 구본웅이 이상이라는 인물을 대상으로 표현주의 화풍을 시도하여 수준작으로 완성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⁶⁾ 표현주의 화풍과 야수파의 화풍이 섞이며 복합적인 화법이 구사되면서 이상에게서 느껴지는 절망과 야망의 두가지 눈빛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도판 3> 나혜석, 자화상, 63.5×50cm, 캔버스에 유채, 1928

나혜석(1896-1948)의 작품은 인물의 눈빛이 슬퍼 보이고 단단하게 경직되어있는 여성의 포즈와 인물의 시선 처리, 굳게 다문 입술을 보면 당시 나혜

6) 김명숙 著, 「서산 구본웅의 미술론과 작품세계」,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p.57

석의 상황과 감정이 드러난다. 그녀는 가부장적인 제도를 비판하며 여성차별을 반대했으며 화가로 성장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나혜석의 자화상은 식민지 조선 여성 화가를 감추고 싶어 서구 여성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은 여성의 당당함을 느끼게 한다. 부잣집 딸로 태어나 신식 교육받았으나 불륜과 이혼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다간 ‘신여성’ 나혜석은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였고, 독립운동가였으며, 페미니스트였다. 자신의 예술성을 가로막은 가부장제를 글과 그림을 통해 깨부수고자 했고, 유교 전통의 여성관에 반기를 든 ‘조선의 페미니스트’로 시대를 앞서간 여성 지식인이었다. 하지만 희대의 스캔들에 휩싸여 이혼 후 ‘삼천리’에 당대 조선이 가진 정조관념과 가부장제의 모순을 비판하는 ‘이혼고백장’과 ‘신생활에 들면서’를 발표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시대를 앞선 페미니스트 ‘나혜석’의 자화상은 고통으로 가득 찼지만, 자화상 속 자신의 모습을 사랑한다고 말한 나혜석 그녀는 비바람에 떨어진 꽃잎이 되었으나 그녀의 정신은 세월을 지내고 해마다 오는 봄처럼 거듭나고 계승되어 다시 피어나는 꽃이 되고 있다.⁷⁾

쓸쓸함과 외로움이 느껴지는 그녀의 인생은 서서히 기억 속에서 잊히겠지만 예술을 대하는 열정은 누구보다 뜨거우며 진보적인 작품활동은 근대 미술계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근대의 인물화 중 천경자의 채색화도 빼놓을 수 없다. 당시 화단에는 추상 미술이나 새로운 실험 미술이 떠오르기 시작했지만, 천경자는 자신만의 화려한 채색기법과 구상화로 독자적인 화법을 만들어가게 된다. 천경자의 작품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 작품에는 목이 길고 광대뼈가 도드라진 왜소한 여인이 등장한다. 여인 앞에는 핑크빛의 장미가 그려져 있으며 머리에는 각각 다른 무늬를 가진 4마리의 뱀을 화관처럼 두르고 있다. 살짝 다문 입술에 정면을

7) 공간 일리(space illi), “꽃은 지더라도 새로운 봄은 온다.” 시대를 앞선 페미니스트 ‘나혜석’의 자화상, 네이버, 2018-04-12, <https://blog.naver.com/hsk3881/221251488891>

응시하고 있는 여인에게서 담담함과 온화함이 느껴지고 전체적으로 짙은 색채를 사용했지만 어둡지만은 않고 부드러우면서 강인한 느낌이 든다. 눈동자에는 슬프지만, 생명력이 있으며 장미와 뱀을 보면 청춘의 환상이 느껴지기도 한다. 개별적인 주제를 가지고 독특한 회화스타일을 개발한 천경자는 오랜 시간동안 사람들을 매료시켰고 사후에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도판 4> 천경자,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 43.5×36cm, 종이에 채색, 1977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 작품은 자신의 경험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자신의 22살 때를 기억하는 숫자이다. 천경자가 그린 많은 자화상 중 유일하게 자신의 자화상이라고 명시한 작품으로 당시에 만난 연인과 헤어지게 되면서 느꼈던 감정과 시절에 대한 회상이 그림에서 보여진다. 인간이 갖는 한과 아픔 그리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미술비평가 이경성은 이 작품을 “다분히 인생을 체념하고 속죄하는 것과 같은 초월적인 태도가 엿보인다” 고 하였으며 “가장 고전적인 해석으로 인생을 희극과 비극으로 나누고 있다. 그중 비극은 인간 정신의 정화작용으로 옛적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에 대한 해석으로 비극은 그 사람의 성격에서 오는 것이라 한다. 따라서 운명적인 불행이나 비극은 엄격한 의미의 비극에서 벗어나 그야말로 신의 섭리라고 한다. 진실과 아름다움을 인생 속에서 찾아 헤매고 그것을 위하여 화가가 된 천경자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달리 타고난 예민한 감성 때문에 온 세상의 고민을 혼자 맡은 양 잿빛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8)



<도판 5> 천경자, 황혼의 통곡, 96x129cm, 종이에 채색, 1995

8) 이경성(1978), 현대화랑 개인전 서문.

친경자의 <황혼의 통곡> 작품에서는 여인들이 옷을 입지 않고 누워있다. 먼 곳을 응시하고 있는 여인들의 눈빛은 초점이 흐릿하며 공허한 감정이 느껴지고 비현실적인 공간에서 잠에 취해있거나 생각에 잠겨 누워있는 분위기에서 신비감이 느껴진다. 인물의 표정과 포즈는 나른한 분위기를 풍기며 노년을 맞이하며 인생에 대한 허무와 고독이 표현되어 보인다.

동양 인물화에서는 색감의 배치와 인물들의 표정과 포즈를 사용해 시대배경 혹은 작가의 감정을 나타내고자 했다. 연구자는 인물화를 작업하며 야수파적인 원색 배치를 사용해 불안이라는 감정의 강렬함을 표현했고 인물이 화면 속에 배치되어있는 포즈와 시선을 사용해 쓸쓸하면서도 외로운 불안의 감정을 표현하려 했다.

연구자는 작업하며 인체의 형태를 일그러뜨리고 해체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과거의 기억과 불안의 감정이 담겨있는 모습인 인체는 주로 공간에 누워있게 배치하거나 표정의 변화에 집중해서 작업했고 인물을 똑같이 그려내는 것보다는 불안의 영혼으로 가득한 형상처럼 보이도록 연구했다.

프랜시스 베이컨(1909-1992)과 루시안 프로이트(1922-2011)의 작품은 인간의 몸을 주제로 한 인물화이다. 두 작가는 인체의 몸과 살의 표현에 중점을 두었으며 불안한 인물상을 표현하였다. 두 작가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베이컨은 물질의 우연성을 활용해 인간을 표현했고 프로이트는 긴 시간 모델을 바라보며 객관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이 다르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이 드러난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이들의 작품은 본능적인 인간의 욕망이 드러나는 듯한 심오함을 주면서 인물을 화면 중앙에 배치해 몸의 표현이 더욱 강렬하게 두드러진다. 베이컨의 변화하는 인물 표정과 프로이트의 사실적인 인물 표현은 보는 사람에게 시선을 뺄 수 없게 만든다. 두 작가는 서로의 재능

을 질투하는 라이벌이자 그림에 대한 열정을 살려주는 가까운 사이였다.



<도판 6> 프랜시스베이컨, 인체연구, 147×134.2cm, 1949

<도판 6>에서 인간이 공간 속으로 스며드는 듯 보이고 배경의 모호한 경계가 많은 이야기를 상상하게끔 한다. 몸의 밝은 색채와 배경의 어두운 색채가 대비되며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다. 인물의 포즈는 다리 한쪽이 들려있어 걸어가는 모습이 연상되고 걸어가는 공간이 어떤 곳일지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프로이트의 사실적 묘사와는 다르게 우연적 효과를 사용했지만, 인체의 뼈와 골격이 두드러져 보인다. 인물은 그로테스크하게 담긴 분위기 중앙에 배치되어 고립되어 보이고 존재의 불안감을 드러나는 듯하다. 베이컨의 작품은 위태롭고 불안하지만 관객에게 긴장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인간의 극한의 감정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도판 7> 프랜시스 베이컨, 두 사람, 152.5×116.5cm, 1953

밀실 된 공간에 뒤엉킨 두 사람은 동성애자로 전시회에서 큰 이슈를 일으켰다. 어두운 분위기에 대비되는 새하얀 침대는 격렬한 인체의 행위가 더욱 두드러져 보이고 인물에서는 강한 힘이 느껴지는데 이는 폭력적인 느낌으로도 다가오고 고통스럽게 소리치는 인간의 괴로움으로도 보인다. 작품을 볼 때 소름 끼치는 기분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갖는 근원적인 외로움과 아픔이 담겨있다.

에드워드 마이브리지(Eadweard Muybridge, 1830-1904)의 연속사진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여 인간과 동물의 움직임을 순간 포착한 마이브리지의 1880년 레슬링 이미지 사진을 이용하여 1953년에 그렸다. 인간의 고독, 왜곡, 고통과 함께 베이컨의 작품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살’의 표현을 들 수 있을 것이다.⁹⁾

오랫동안 베이컨은 살의 묘사에 집중했는데, 살은 그에게 있어 존재와 사

9) 최육, 앞의 학술논문지. p.93

물들의 근원적인 물질이었으며 삶의 본질적인 물성이었다. 물감은 그 색채와 질감, 물질의 밀도와 유동성이 곧 살이 된다. 이것은 베이컨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육체적 욕망을 충족시키고, 정신적 특성을 발견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베이컨은 프로이트와 함께 리얼리스트로 받아들여진다.¹⁰⁾ 베이컨의 작업은 여러 번 바라보면 누구나 같은 감정을 갖고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면서 역으로 위로의 감정이 들기도 한다.

루시안 프로이트는 간결하지만 정확하게 현대인의 불안과 긴장의 심리는 드러내는 작가이다. 인물들은 어딘가 기대어있거나 누워있고 이는 심리적 불안감이 있는 사람들이 안정을 취하기 위한 자세와 연관된다. 그의 강박적인 묘사는 세심하고 날카롭고 붓을 다루는 숙련도가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다. 무방비하게 누운 모델의 누드 작품은 육체적인 추함이 느껴지고 얼굴에서는 사람의 인간적인 감정이 보인다.



<도판 8> 루시안 프로이트, 잠든 연금 관리자, 150.5×161.3cm, 1995

10) Lawrence Gowing and Sam Hunter. Metaphor and Meaning in Francis Bacon. Hirshhorn Museum and Sculpture Garden, Thames and Hudson, 1990, p.37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간의 존재와 감정에 대한 관심으로 프로이트는 종종 조부였던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와 비교가 되기도 한다. 프로이트 그림을 그릴 때 감동적인 것, 서사적인 것을 피했으며, 냉철하게 대상을 분석하려는 의지가 있었다. 그의 모델이 되었던 사람들은 하나의 사물처럼 포즈를 취했다. 이처럼 프로이트의 냉철한 감성은 심리적인 흐름이 강조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들은 일체의 미화와 장식성이 배제된 실존주의적 경향의 우울하고 불안한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리얼리티를 추구하였다. 프랜시스 베이컨과 루시안 프로이트 모두 물감의 물질성을 통해 신체의 피부와 살의 표현을 중시하였다. 살은 그들에게 존재의 근원적 물질이며 인간의 육체적 욕망과 정신적 특성을 그 살을 통해 회화와 연결하려 하였다. 베이컨의 살은 ‘살아 있는 살’이라고 표현했고 프로이트는 “나는 물감이 살처럼(as Fresh) 작용되기를 원한다.”라고 진술했다.¹¹⁾

프로이트의 초상화는 신체에서 오는 노화, 죽음 같은 삶의 진실과 대면하는 힘을 주고 모델의 특징을 담담하고 솔직하게 기록하는 섬세한 손길을 느낄 수 있다. 미묘하게 다른 피부의 색들과 몸의 굴곡은 감정의 강렬한 파장을 느끼게 하고 이는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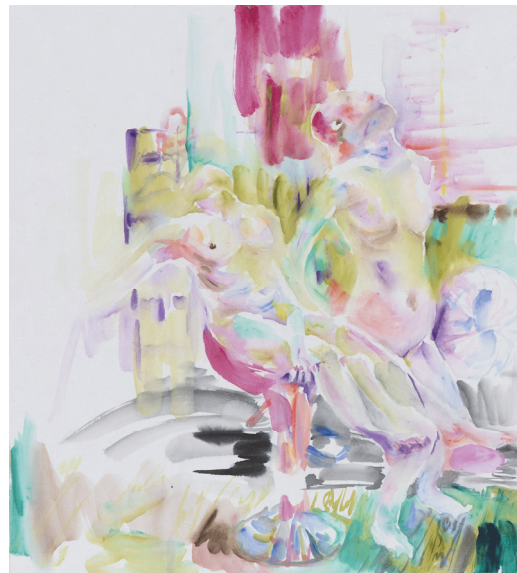
프랜시스 베이컨과 루시안 프로이트 모두 인체의 몸과 살 표현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자는 인물화 작업을 하며 인체의 몸을 투명하게 표현함으로써 반복적인 시간성을 나타내고자 영상 촬영을 관찰하고 인체의 변화에 중점적으로 작업했다. 현대인의 불안한 인물상을 표현하며 위태로운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불안과 긴장의 심리를 해소하고자 인물이 어딘가에 기대어 누워있는 자세가 연구자의 작품 속 인물들의 포즈와 연관되어있다.

11) 최육, 앞의 학술논문지. pp98~100

Ⅲ. 본인 작품 설명

1. 인체의 반복적 표현

본인은 불안을 토대로 작업을 하면서 불안은 아마도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심리 상태이고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감정이라고 생각했다. 불안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으며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강한 욕구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깨달았다.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는 인물이 천장을 향해 소리를 뺏거나 팔과 다리를 뺏는 등 가만히 있지 못하는 행동의 변화가 생겨난다. 이러한 행동변화를 시간성으로 나타내고자 인체의 몸과 살을 투명하게 표현했다. 차분한 감정으로 앉아있는 사람부터 인물이 놓인 공간에서 벗어나고자 의자에서 일어나는 시간까지의 포즈를 겹쳐서 그리기 시작했다.



<작품 1> 의자에 앉은 사람의 초상, 53×45.5cm, 장지에 혼합재료, 2020

<작품 2> 무제, 53×45.5cm, 장지에 혼합재료, 2020

과거에 대한 경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실제 몸의 증상으로 연결된다. <작품 1>부터 인체의 포즈를 겹쳐서 그리기 시작했다. 하나의 포즈에서 각도의 변화를 주면서 작업했다. 가장 구상적으로 시작했던 작업으로 인체의 비례와 특징들이 잘 드러나는지 집중했다. 신체가 한 겹씩 중첩되어 표현됐을 때 감정이 심리적인 것에서 나아가 더 격렬하게 표현된다. 표정의 변화와 행위의 변화는 자신의 의미를 찾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을 갖고 몸부림치는 것과 비슷하다. <작품 2>에서는 인체의 반복적 행위가 잘 드러날 수 있는 배경에 대해서 고민했다. 직선적이고 단순한 배경과 한지의 특성인 번짐을 살린 배경 등을 연구했다.



<작품 3> 옥조에 앉은 사람의 초상, 53×45.5cm, 장지에 혼합재료, 2020



<작품 4> 허리를 구부린 사람의 초상, 53×45.5cm, 장지에 혼합재료, 2020

작업 시작점은 불안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반복적인 이미지였다. 불안에서 오는 본능적인 감정은 인간의 변하는 행위에 빠른 속도감을 더해주기도 하고 표정의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작업의 시작은 사방이 막힌 좁은 방에 앉아 나는 왜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으로

시작한다. 오랜 시간 고통스러운 정도로 불안에 대한 감정을 그대로 느껴보면서 변하는 신체의 모습을 연구했다. 본인을 모델로 삼아 연구한 이유는 하루에 몇 시간씩 모델을 두고 그림을 작업하기에 본인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편안했고 눈앞에 보이는 인체를 바라볼 때면 본성을 끄집어내기에 적절했다.

불안이 주는 답답함과 막힌 공간이 주는 답답함이 연결되게 느껴졌고 공간에서의 본인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본인의 무의식적 흐름에서 오는 즉흥적인 에너지와 폭발적인 감정은 몸부림을 통해 보인다. 2020년 제작된 <작품 3>, <작품 4>와 같이 인체의 표면이 투명하다는 특징이 드러난다. 연구자의 인체표현은 행위의 반복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투명한 질감으로 표현했다. 불안은 그림에서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나타난다. 인물의 행위를 영상으로 촬영하여 긴 시간에 걸쳐서 변화를 관찰하고 그림에 담아냈다. 인물이 누구인가 명확히 드러내기보다는 인물이 갖는 감정과 분위기를 전달하고자 했다. 내면이 담긴 투명한 피사체는 내가 겪은 불안과 고통을 포즈와 표정으로 드러내고 있다.



<작품 5> 바닥에 누운 사람의 초상, 120×240cm, 장지에 혼합재료, 2020

<작품 5>에서는 직선의 배경에서 그치지 않고 보색의 대비를 사용했다. 보색은 인물이 놓인 공간과 그 밖의 공간을 대비시키려는 방법으로 사용했고 노란빛을 바라보며 마음이 때려받은 듯 인물이 앞으로 나아가는 시도를 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불안은 인간의 자아로서의 존재에 위협을 느꼈을 때 나타난다. 현대를 사는 대부분 사람에게는 중요한 가치가 남들의 호감을 사고 타인의 인정을 받는다는 데 있다. 우리가 혹시 남들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는가, 인정을 받지 못하지는 않는가, 그리고 버림을 받고 홀로 남게 되지는 않는가 하는 것 등이 가장 큰 불안의 요인¹²⁾이 된다.

노란 빛이 비치는 공간은 불안의 요인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지를 준다. 빛에서 오는 그림자는 여러 겹으로 겹쳐진 인물의 움직임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장치이고 두 개의 화면으로 나뉘서 표현한 것은 불안에서 벗어나 활력이 넘치는 장소로 나아가려는 정신적인 생각과 그렇지 못하는 신체의 모습이 분할되어 표현됐다.



<작품 6> 사람의 초상, 193.9x390.9cm, 장지에 혼합재료, 2020

12) 롤로메이, 백상창(역),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 서울: 문예출판사, p.47

<작품 6>에서 화면이 커지면서 과감한 붓질을 위해 페인트용 붓과 나이프를 이용했고 사다리를 타고서 작업했다. 모든 회화가 화가의 몸짓이 담긴 흔적인 것처럼 터치들이 모여서 만든 질감과 색에 집중했다. 색들이 모여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인 화면을 만들어냈고 불규칙한 특성이 불안이 주는 감정과 닮아있었다. 본능적이고 힘 있는 붓질은 보고 있으면 불안함을 유발하기도 하고 캔버스에 던져진 물감들은 마치 인체의 구조들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인다. 인체의 해체된 방식은 불안의 소용돌이에 잠긴 것처럼 고통스러움을 보여주는 심리 상태를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불안과 공포는 방어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 중의 하나이다. 우리가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 심계항진, 발한, 동공확장, 근육의 긴장 등과 같은 신체적 반응이 동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체적 변화와 함께 정서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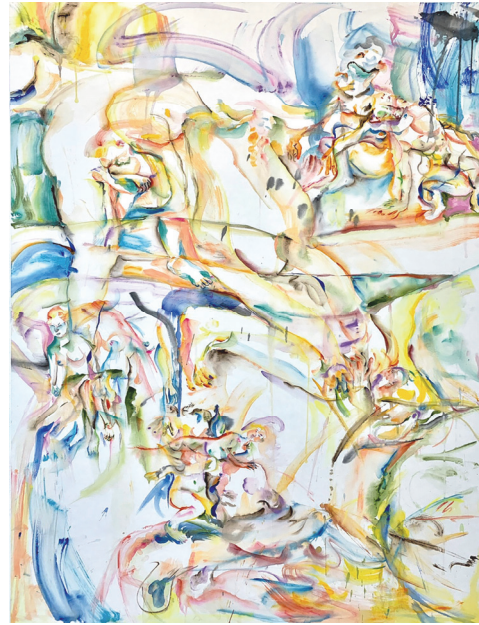
반복되는 불안은 신체가 망가지는 이미지를 수반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반응도 동반한다. 가슴 두근거림, 흉부 통증, 숨 막힘, 어지러움, 호흡곤란 등을 비롯한 신체 반응이 있으며, 이 중에서 가장 흔한 반응은 죄어지는 느낌이다¹⁴⁾ 대형 작업은 신체의 반응에 집중하여 긴 붓으로 그리기 시작했고 신체 구조와 얼굴들이 제각각의 자리에서 남게 되었다. 붓질은 대담해지면서 빨라졌고 점진적으로 두껍게 겹쳐진 물감이 신체 가죽의 두께처럼 느껴졌다. 물감이 쌓이면서 드러나는 질감은 사람의 주름으로도 보인다.

13) 석정호, 김세주, 김찬형, “불안의 생물학적 근원”, 「대한불안학회지1」, 2005, p.7

14) Sims, Andrew. 『마음의 증상과 징후 기술 정신 병리학 입문』, 김용식, 김임렬, 정성훈 공역. (서울: 중앙문화사, 2006). p.420



<작품 7> 사람의 초상, 112.1×145.5cm, 장지에 혼합재료, 2020



<작품 8> 사람의 초상, 193.9×130.3cm, 장지에 혼합재료, 2020

<작품 7>, <작품 8>에서는 인체의 크기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작은 인물부터 큰 인물까지 한 화면에 겹쳐서 그렸다. 하나의 신체를 강조하기보다는 몸의 굴곡이 회화 속에서 흔적으로 나타나는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응축된 감정이 한 번에 폭발하는 즉흥적인 에너지가 화면에 커다란 붓질로 표현되면서 형상이 사라지고 신체의 부분만 남게 된다. 다른 여러 색으로 표현된 신체는 불안에서 오는 다양한 감정을 표현했다.

2. 일상 이미지

불완전한 인체를 일상적인 요소와 조합하는 방법은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고 익숙함과 낯섬이 공존하는 신비로운 상황이 구현된다. 실제 연구자가 살고 있는 집의 마당을 모티브로 작업을 하기도 하고 패턴을 사용한 공간을 연출하기도 했는데 특히 둥글둥글한 패턴 무늬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사물들로 표현된다. 원색의 조합으로 된 패턴은 직선적이고 정렬이 잘 돼 있어 자유롭게 움직이는 인체의 이미지와 대비된다.



<작품 9> 정원울타리, 116.8×91cm, 장지에 혼합재료, 2021

그중에서도 <작품 9>는 본인이 살고있는 집 마당에 있는 울타리와 방의 공간을 활용했다. 유년기를 보냈던 마당의 풍경에서는 밤이 되면 밝게 빛나던 별의 무리가 떠올랐고 달빛에 비춰 몽환적으로 보이던 식물들이 주를 이루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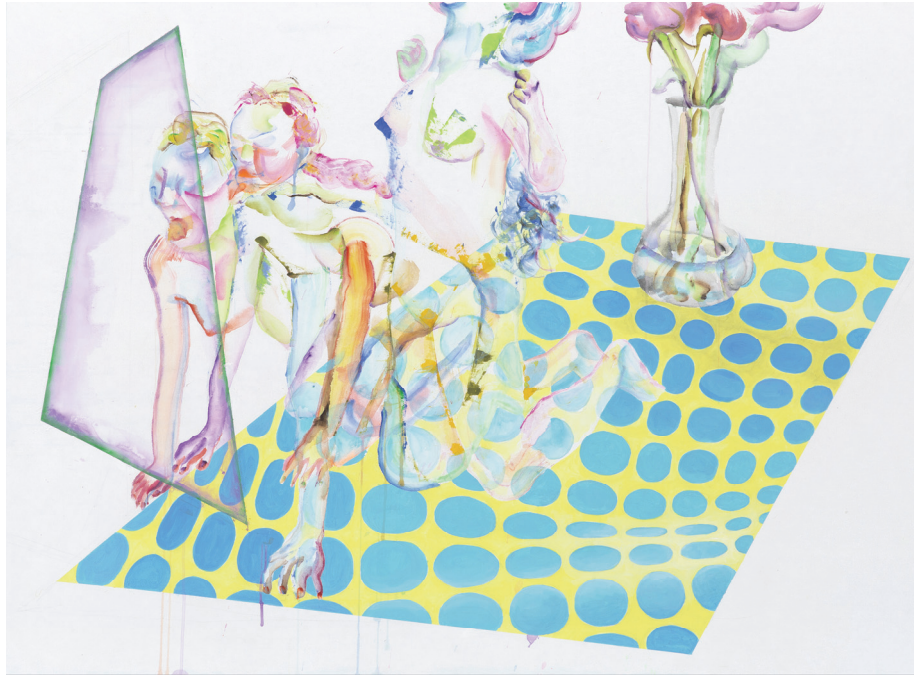
있다. 인물은 별빛으로 나아가기 위해 길게 서있는 행위를 하고 있고 풍경과 경계가 허물어지며 아련한 기억 속에 있는 느낌을 준다. 파란 문은 안쪽 정원 과 이어지며 문 옆에서는 피어오르는 빨간 장미와 나뭇잎이 무성한 나무가 놓여있고 형형색색의 식물들은 외로움과 불안을 느끼는 인물을 감싸 안으며 평온함을 주기 위한 소재로 사용했다.



<작품 10> 천장을 굽는 사람의 초상, 90.9×72.7cm, 장지에 혼합재료, 2020

<작품 10~11>에서 평면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며 사실적인 사물과 양면적으로 실루엣으로 보이는 인물을 놓았다. 언뜻 보기에 색감이 다채로워 재미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품 9>에서 인물처럼 맥없이 주저앉는 사람 <작품 10~11>에서는 갇힌 좁은 공간에서 소리치는 사람이 있다. 인체의 윤곽만 드

러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일상적인 사물들을 공간 속에 배치해서 사실적인 분위기를 더했다.



<작품 11> 문 밖을 나서는 사람의 초상, 112.1×145.5cm, 장지에 혼합재료, 2020

색면 위에 겹쳐진 인물의 모습은 공간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삶 속에서 보는 일상적 사물과 공간은 불안의 감정이 일상 속에 언제나 함께 스며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도형적인 바닥과 대비되는 투명한 천장은 다른 차원의 세계, 곧 불안에서 벗어나는 삶이다. 새로운 입체적인 공간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반복되는 패턴의 공간은 시간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고 적절한 균형감과 동시에 크기 변화에서 오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다. 이를 통해 본인이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는 조형적 변화를 모색해보았다.

3. 초현실적 풍경과 인물

19세기 낭만주의 화가인 프리드리히(1774-1840)는 자신만의 화면구성으로 풍경과 인물을 다룬 작가이다. 그의 작업은 명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자연 속을 산책하고 있는 방랑자처럼 보인다. 어릴 적 동생이 얼어붙은 바다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얼음이 깨져 빠져서 죽는 모습을 본 프리드리히는 성인이 되어서도 충격적인 고통으로 우울중에 시달리게 된다. 인물의 표현이 영혼의 소리, 내면의 이야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인간이 깊은 사색에 빠져 고뇌하는 모습으로도 보인다. 그림의 색감이 꿈과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음산하면서 차분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도판 9> 카스파르 다비트 프리드리히, 안개바다 위의 방랑자, 94.8×74.8cm,
캔버스에 유채, 1818

그의 작업은 단순한 자연의 숭고함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핵심적인 문제인 인간의 불안, 삶과 죽음, 종교, 정치적인 문제 등에 질문을 제기하는 하나의 통로로서 희망, 두려움, 갈망 등 프리드리히 자신의 심리를 표현하는 수단이었다. 프리드리히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도관 7>을 살펴보면 인간은 자연을 바라보고 있으며 자연의 일부인 것처럼 혹은 자연과 대립해 있으면서 동경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신의 존재를 강하게 부각시키면서 화면에 긴장감을 주는 이러한 인간들은 유기적으로 풍경에 합류되는 것이 아니라 고립되어 보이기도 한다¹⁵⁾

프리드리히의 작업은 고립된 감정을 느끼게 하고 철학적인 실존의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지팡이에 의지하며 서있는 모습은 인간의 자아성찰을 통해 느낀 삶의 굳건한 의지가 보인다.



<작품 12> 숲, 72.7×92.9cm 장지에 혼합재료, 2021

15) 이주영, 『예술론 특강』, 서울: 미술문화, 2007, p.90

2021년 본인은 실제로 불안장애를 겪기 시작했고 불안을 재현에서 멈추지 않고 해소하는 방향을 모색했다. <작품 12>에서 자연과 인간이 대립해서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때 풍경은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만들었고 프리드리히의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을 벗어나려는 불안한 상태를 자연을 통해 극복하려 했다. 누워있는 자세는 불안감으로부터 오는 심장의 박동수를 조절하기 위한 자세이다. 불안장애가 심할 때는 서있기만 해도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며 정신이 혼미해지기 때문이다. 푸릇하고 화려한 색으로 피어난 식물은 길게 자라나고 있고 인물도 식물을 향해 손을 뻗고 있다.

한지의 번짐을 활용해 인물이 풍경과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듯한 표현을 연출했다. 인물이 식물과 만나면서 아래로 부드럽게 나아가며 불안의 감정이 해소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이는 삶의 압박 속에서 벗어나 꿈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바라던 연구자의 심리가 담겨있다. 비현실적인 환각의 이미지는 관람자를 초현실의 세계로 안내한다.



<작품 13> 움직이는 시간들, 116.8×91cm, 장지에 혼합재료, 2022

<작품 14> 자화상, 116.8×91cm, 장지에 혼합재료, 2022

자화상은 담담한 표정으로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 색조의 대비와 식물의 생명력은 비현실적이고도 신비롭게 보인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밝고 어두움이 공존한다.

<작품 13>의 인물의 포즈는 땅에 힘없이 기대어있고 얼굴은 식물과 맞닿아 있다. 저 멀리 풍경은 차가운 겨울이지만 인물 주변에는 봄의 새싹들이 피어나면서 화면을 채우고 있고 봄의 시간과 겨울의 시간은 모호한 경계로 흐려진다. 늘어진 인물은 공기의 흐름과 꽃내음을 맡으며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 <작품 14>의 인물은 팔에 힘을 주고 목을 간신히 들고 있다. 자화상을 상반신으로 구성하여 표정묘사에 집중했고 이는 공허하면서도 많은 생각에 잠긴 눈빛과 힘없이 놓인 인물의 감정을 표현했다.



<작품 15> 자화상, 116.8×91cm, 장지에 혼합재료, 2022

<작품 16> 자화상, 116.8×91cm, 장지에 혼합재료, 2022

<작품 15>의 인물은 거대한 숲속에 엎드려 숨죽이고 있고 맑고 순수한 눈빛으로 세상을 향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갖고 있다. 거대한 꽃과 식물은 불안을 감싸 안아주며 인물에게 평온함을 갖게 하고 식물의 씨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며 식물이 더 많이 자라날 것을 암시한다.

대부분의 초현실주의자는 깨어 있는 사고가 마비되면 우리들 내부에 숨어있는 유사성과 야만성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밝힌 지크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저작에서 큰 감명을 받았다. 예술은 완전히 깨어 있는 이성에 의해서는 결코 생산될 수 없다고 하는 초현실주의자들의 주장은 바로 이러한 프로이트의 학살에 근거하고 있다. 그들은 이성이 과학을 가능케 했다는 것은 인정하나 비(非)이성만이 우리들에게 예술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¹⁶⁾

<작품 16>의 인물은 물 위를 떠오르며 사람의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불안의 감정에서 벗어나고 있다. 연구자는 내면의 눈을 통해 바라본 초현실적 풍경을 담아냈다.

16) E. H. 콰브리치 지음, 백승길, 이종승 옮김, 『서양미술사』 (16차 개정증보판) 예경, 1995, pp. 591~592



<작품 17> 아무것도, 162.2×130.3cm, 순지에 혼합재료, 2022

<작품 17>에서 실제로 작업하며 강한 색채와 식물들은 불안을 해소하는 것에 도움을 주었다. 내면적인 감성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을 표현하려고 시도했다. 화면에 담긴 풍경은 무의식의 흐름에 따라 연출했고 검은색 빛의 여백과 식물은 고독하면서도 화려함을 느끼게 한다. 인물을 젊은 여성으로 선택한 것은 힘이 없고 수척해 보이지만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준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갈망이 절실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꿈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상야릇한 혼돈 상태를 모방하려 했다. 몇몇 그의 작품 속에서 그는 현실 세계에서는 서로 모순되는 단편들을 놀랍도록 잘 섞어놓았고, 그랜트 우드의 풍경화에서 볼 수 있는 치밀한 정확성으로 그것은 묘사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이런 광기 있는 장면 속에는 반

드시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 것만 같은 으스스한 느낌을 준다.¹⁷⁾



<작품 18> 무제, 90.9×72.7cm, 종이에 연필, 수채, 2022

현실 세계에 속한 인물이 초현실주의 작품 안에서 풍경, 사물과의 관계를 맺게 되고 이러한 구조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작품 18>에 나오는 인물은 꿈과 현실의 경계를 부유하며 정신적인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누워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고 배경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 물속에 비친 자연은 하나의 새로운 시공간으로 인물에게 편안함을 주고 있다. 연구자는 신비주의 적이고 낭만적인 자연 풍경을 통해 심리적 불안감을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다. 자연에 내재된 생명력은 정신과 신체의 균형을 가져오고 긴장을 해소시켜줄 것이다.

17) E. H. 고프리치 지음, 백승길, 이종승 옮김, 『서양미술사(16차 개정증보판)』 예경, 1995, p.592



<작품 19> 종이의 호흡, 130.3×193.9cm, 순지에 혼합재료, 2022

<작품 19>에서는 인물의 형태가 해체되고 실내의 공간과 실외의 공간이 합쳐지며 인간의 내면과 외부현실이 소통되는 계기가 된다. 일상적 실내 풍경을 구성하는 면적인 공간과 평범한 식물이 펼쳐지고 익숙함과 낯선 화면이 공존하는 신비로운 상황이 표현된다. 얼굴과 팔, 다리 등 뒤섞이면서 표현된 인물은 불안을 대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배경과 새로운 조합을 맺게 된다.

인물 주변에는 식물의 형태가 꽃가루처럼 배치되고 매우 검은 먹의 색감과 대비되면서 폭죽처럼 보이기도 한다. 인물과 함께 놓인 꽃가루가 자유롭고 신비로운 초현실적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내면의 감정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이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불안을 주제로 한 본인의 인물 작품의 내용을 서술하였다. 불안을 나타내는 과정을 통해 단순히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초현실적인 요소를 활용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연구자 본인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대부분은 불안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불안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 인체의 이미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체의 구조와 초현실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불안을 재현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작업했다.

연구자는 2021년부터 심리적 불안에서 나타나는 반복적인 몸짓의 변화를 재현하려 작품을 제작했고 인물의 형태가 재조합되고 재구성되면서 새로운 화면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불안을 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반복적인 몸짓 그리기는 불안의 재현하는 과정에 집중했으며 일상 이미지와 자화상과 초현실적 풍경을 통해서 강박을 내려놓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식의 그리기로 전환하려 노력했다. 일상의 이미지와 식물의 화려한 색채표현은 심리적 불안감 해소에 많은 역할을 했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며 마음속 여유를 갖게 되었다.

연구 과정을 통해 불안이 연구자의 내면에 깊게 자리한 이유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경험한 무한경쟁과 성과주의, 대인관계에 대한 결핍이 내면 깊은 곳에서 불안이 쌓이게 되며 이를 인식하지 못한 점이 더욱 불안감을 상기시켰다는 사실을 알았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화가들이 내면세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연구해왔고 본인 역시도 내면의 감정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과 대화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작품 속 인물이 초현실적인 세계와 상호작용하

며 현실과 꿈의 경계, 심리적 세계를 통해 불안이 해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는 관람자가 작품을 통해 내면의 감정을 살펴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세계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전적인 작품을 만들며 작업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Benjamin Rowland, Jr, 『동서미술론』, 열화당, 2002

E. H. 콰브리치, 『서양미술사』, 예경, 1995

Lawrence Gowing and Sam Hunter, 『Metaphor and Meaning in Francis Bacon』, Hirshhorn Museum and Sculpture Garden, Thames and Hudson, 1990

Sims, Andrew, 『마음의 증상과 징후 기술 정신 병리학 입문』, 중앙문화사, 2006

롤로메이, 백상창 역,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 문예출판사, 1990

이주영, 『예술론 특강』, 미술문화, 2007

위유열, 『한권으로 끝내는 미술교육』, 열린교육, 2004

<논문>

강유림, 「인물화 정신성의 시각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김영나, 「1930년대의 한국근대회화」, 미술사연구 제7호, 1993

김명숙, 「서산 구본웅의 미술론과 작품세계」,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학술지>

석정호, 김세주, 김찬형, 「불안의 생물학적 근원」, 대한불안학회지1, 2005
최욱, 「화가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과 루시안 프로이트(Lucian Freud)의 작품세계에서 인체표현을 중심으로 한 비교연구」, 유럽문화예술 학논집, 2022

<도록>

이경성, 현대화랑 개인전 서문. 1978

<사이트>

공간 일리(space illi), <https://blog.naver.com/hsk3881/221251488891>

ABSTRACT

Representation and resolution of anxiety through portraiture

– An analysis of my own work –

Park, Hae Ri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topic of this study is 'Representing and relieving anxiety through portraiture'. This study is based on the works from 2020, "Portrait of a Person Sitting in a Bathtub," to 2022. Among the works produced in 2020, the most important feature that appears on the screen is the change in the figure's body language. The pain of anxiety starts mentally and is also expressed through gestures, and by paying attention to this feature of anxiety, I tried to reproduce a distorted body image. Later, I noted that the work of revealing gestures can not only express anxiety but also relieve anxiety. This paper is a study of works created to express the emotion of anxiety, and aims to present the works systematically by studying the creative motivation, sculptural characteristics, and expression techniques of the works.

Since 2019, I have been filming and studying the repetitive acts

in the work process that reflect psychological states, and exploring the characteristics of gestural images that repeatedly stand out in the videos. In this process, I studied the images in the video to objectively look at the changes in my body, and the work process I created while thinking about the changes in my body also caused me another psychological anxiety. After experiencing an anxiety disorder in 2021, I looked more closely at my emotions and realized that humans are always anxious. Whether it's uncertainty about the future, anxiety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r the endless competition and performanceism of modern society, we live in the present with memories and experiences from the past. In my 2021 work, the figures have incomplete forms and cannot stand upright, which is related to my psychological state and memories. In addition, the limitation and anxiety caused by death is a phenomenon that is basically latent in humans. Resolving and healing this became the basis of the researcher's work.

I worked on the expression of emotions based on self-portraits and approached the understanding of the self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space in which the self-portrait is placed. In my work in 2022, I focused on the recognition of human anxiety and how it can be resolved through painting, and expressed the resolution of anxiety through plants with colorful colors and life. In this study, I wanted to investigate the potential of painting for personal representation and whether it can express the meaning of expanded representation.